

#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오윤정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 Predi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Yun-Jung Oh  
Dep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282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평균평점 3.36점이었고, 하위 구성요소는 학업진로가 가장 높았고, 개인심리, 사회체험, 대인관계, 진로준비 순이었다.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는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자기효능감이었고, 하위 구성요소인 학업활동은 학교성적, 진로준비는 자기효능감, 개인심리와 사회체험은 감성지능, 대인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학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예측요인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ub-scales of nursing students.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ward 282 freshman nursing students to measure college life adjustment,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2 through October 7, 2016. This study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8.0. The average mean of college life adjustment was 3.36 and academic activity was the highest, followed by individual psychology, social exper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preparation. A correlation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college life adjustment and sub-scale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e strongest predictor of college life adjustment was a self-efficacy. And sub-scales, the strongest predictor of academic activity was academic achievement, career preparation was self-efficacy, individual psychology and social experience wa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psychological well-being. An intervention program which includes these significant variables of subjects is essential to improve of college life adjustment.

**Key Words** : Nursing student, College life adjustment,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Predictors

Received 30 May 2017, Revised 30 June 2017  
Accepted 20 July 2017, Published 28 July 2017  
Corresponding Author: Yun-Jung Oh  
(Dep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Email: yjoh@kmc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유일한 목표로 하던 고등학교의 시절과는 달리 대학의 낮은 환경 속에서 직업 및 진로, 학점관리, 대인 및 이성관계 등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 초기부터 학습스트레스, 임상실습,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한 중압감과 과중한 학습량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또한 높은 취업률로 인한 무분별한 학과 지원으로 인해 적성간의 불일치로 더욱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2]. 이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으면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감 상실과 성적 저하 등이 발생한다. 결국에는 대학생활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휴학이나 자퇴 등의 중도 탈락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3]. 간호학과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은 향후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 투입되었을 때 실력과 인성을 갖춘 간호사로서의 성장 뿐만 아니라[2], 나아가 간호사의 인생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활 초기인 1학년부터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건전한 개인 심리를 바탕으로 대학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업, 즉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과 결과를 의미한다[4].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하위 구성요소로는 Baker와 Siryk[5]는 학업성취와 관련된 학업적 적응,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과 과외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적응,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장애와 관련된 개인-정서적 적응, 그 밖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 대한 만족이나 긍지 등 대학 환경적 적응이라고 하였다. 또한 Jeong과 Park[4]은 대학생활 적응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과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대학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대인관계, 학업에 충실하고 전공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업활동, 자격증을 따고 영어준비를 하는 등의 진로준비,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식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개인심리, 교내외의 여러 단체 및 조

직에 참가하여 사회생활의 경험을 하는 사회체험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별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는 심리적 안녕감[6,7], 자기효능감[8,9], 감성지능[10,11] 등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며, 삶의 목적이 있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있다[12].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긍정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의 변화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영향을 주므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하였다[6]. 또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응 능력이 높아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13]. 감성지능은 대인관계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14].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 훈련받는 간호대학생들은 환자, 보호자,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실한 공감 능력,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성지능을 대학 입학 시부터 개발할 필요가 있다[10].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정서적 진정, 긍정적 해석, 적극적 대처방식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며[15],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 및 과제수행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의 사회구성원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16].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학시 부터 체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논문[6,9,17-19]을 보면, 대학생활 적응과 변수들 간의 관계 및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었다. 반면에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별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부재한 실정이었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학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주요 변수인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과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1 연구대상 선정 및 표집

본 연구는 D시에 소재한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 3개 대학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대상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이었다. 자료조사를 위해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담당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과정에서 언제든지 원치 않으면 참여를 취소할 수 있음과 연구 자료는 정해진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해 주었다. 대상 학교의 1학년 학생 수를 근거로 하여 300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총 28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변수의 수 14로 분석하였을 때 최소 194명이 요구되어 본 연구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수를 충분히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Jeong와 Park[4]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활동 4문항, 진로준비 4문항, 개인심리 4문항, 대인관계 4문항, 사회체험 3문항의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다.

### 2.3.2 심리적 안녕감 도구

심리적 안녕감은 Ryff[20]가 개발한 척도를 Kim 등 [21]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 수용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찰력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으로 총 4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2$ 이다.

### 2.3.3 감성지능 도구

감성지능은 Wong과 Law[22]가 개발한 척도를 Jung[23]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인식,

타인감성인식,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으로 각 4문항,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 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다.

####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와 Maddux[24]가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25]이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 이다.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은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 적응 예측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분석하면, 여성이 241명(85.5%), 연령은 20~23세가 262명(92.9%) 이었고, 성별과 연령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는 없는 군이 175명(62.1%) 이었고, 건강상태는 건강한 군이 227명(80.5%)이었으며, 종교와 건강상태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수준은 여유가 있는 군이 87명(30.9%), 보통인 군이 160명(56.7%), 여유가 없는 군이 35명(12.4%) 이었고, 경제수준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6.018, p<.01$ ), 여유가 있는 군과 보통인 군이 여유가 없는 군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학과선택 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117명(41.5%), 취업률이 높아서 108명(38.3%), 부모님 또는 선생님 권유로 31명(11.0%), 고등학교 성적을 고려해서 26명(9.2%)로 나타났다. 학과선택 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F=8.103, p<.001$ ),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지원한 군이 취업률이 높아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 권유와 고등학교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한 군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군이 178명(63.1%), 보통 군이 91명(32.3%), 불만족 군이 13명(4.6%)이었고, 전공만족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34.538, p<.001$ ), 만족 군의 학생들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보통 군, 불만족 군의 순이었다.

교우관계는 만족 군이 202명(71.6%), 보통 군이 73명(25.9%), 불만족 군이 7명(2.5%)이었고, 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24.848, p<.001$ ), 만족 군과 보통 군이 불만족 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학교성적은 평균평점 4.0이상인 군이 33명(11.7%), 3.5이상~4.0미만인 군이 97명(34.4%), 3.0이상~3.5미만인 군이 110명(39.0%), 3.0 미만인 군은 42명(14.9%)이었고, 학교성적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F=9.358, p<.001$ ), 평균평점 3.0 이상인 군이 3.0 미만인 군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높았다.

거주형태는 자가 216명(76.6%), 기숙사 42명(14.9%), 자취 24명(8.5%)이었고, 거주형태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 3.2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 64.00점 이었고,

평균평점은 3.36점이였다. 하위 구성요소로는 학업활동이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인심리 3.70점, 사회체험 3.25점, 대인관계 3.07점, 진로준비 2.96점 순이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 160.95점이였고, 평균평점 3.49점, 감성지능은 평균 79.85점이였고, 평균평점은 4.99점, 자기효능감은 평균 79.82점, 평균평점은 3.47점이였다 <Table 2>.

### 3.3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심리적 안녕감( $p<.001$ ), 감성지능( $p<.001$ ), 자기효능감( $p<.001$ )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를 보면, 학업활동, 진로준비, 개인심리, 대인관계,

<Table 1> College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p) or F(p)	Scheffe
Sex	Male	41(14.5)	62.46(11.67)	-1.015(.311)	
	Female	241(85.5)	64.26(10.30)		
Age(year)	<20	20( 7.1)	11.04( 2.46)	-1.954(.052)	
	20~23	262(92.9)	10.41( 0.64)		
Religion	Yes	107(37.9)	64.36( 9.73)	0.451(.653)	
	No	175(62.1)	63.78(10.98)		
Perceived health status	Good	227(80.5)	64.39(10.72)	2.491(.085)	
	Moderate	49(17.4)	63.30( 9.62)		
	Poor	6( 2.1)	55.00( 3.79)		
Economic status	High <sup>a)</sup>	87(30.9)	66.75( 9.83)	6.018(.003)**	a,b>c
	Average <sup>b)</sup>	160(56.7)	63.37(10.70)		
	Low <sup>c)</sup>	35(12.4)	60.00( 9.74)		
Entering motivation	High school score <sup>a)</sup>	26( 9.2)	59.92( 9.83)	8.103(.000)***	b>acd
	Aptitude & interest <sup>b)</sup>	117(41.5)	67.18( 9.36)		
	High employment rate <sup>c)</sup>	108(38.3)	62.94(11.14)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teacher <sup>d)</sup>	31(11.0)	59.06( 9.45)		
Major satisfaction	Satisfactory <sup>a)</sup>	178(63.1)	67.22( 9.49)	34.538(.000)***	a>b>c
	Average <sup>b)</sup>	91(32.3)	59.68( 9.31)		
	Poor <sup>c)</sup>	13( 4.6)	49.76( 9.49)		
Relationships with friends	Satisfactory <sup>a)</sup>	202(71.6)	66.24( 9.80)	24.848(.000)***	ab>c
	Average <sup>b)</sup>	73(25.9)	59.54( 9.13)		
	Poor <sup>c)</sup>	7( 2.5)	46.14(12.82)		
Academic achievement	4.0≤ <sup>a)</sup>	33(11.7)	67.78(10.35)	9.358(.000)***	abc>d
	3.5~3.99 <sup>b)</sup>	97(34.4)	66.57( 9.00)		
	3.0~3.49 <sup>c)</sup>	110(39.0)	62.95(10.81)		
	>3.0 <sup>d)</sup>	42(14.9)	57.80(10.15)		
Living environment	With parents	216(76.6)	64.10(10.45)	0.679(.508)	
	Dormitory	42(14.9)	64.80( 8.49)		
	Self-catering	24( 8.5)	61.75(13.80)		

\* $p<.05$ , \*\* $p<.01$ , \*\*\* $p<.001$

<Table 2> College life adjustment, psychological well-be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Variables	Means(SD)	Average Means(SD)	Potential Score
College life adjustment	64.00(10.51)	3.36(0.55)	1~5
Academic activity	15.37( 2.31)	3.83(0.59)	
Career preparation	12.10( 3.35)	2.96(0.83)	
Individual psychology	14.86( 2.59)	3.70(0.66)	

사회체험과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 간에도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Table 3>.

3.4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모두 넣어 단계적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차 한계,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 잔차값(Durbin-Watson)을 검토하였다. 공차 한계 값은 0.596~0.952에, VIF는 1.050~1.678로 분포되었고, Durbin-Watson 값은 1.96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는 자기효능감( $\beta=0.326, p<.001$ ), 전공만족도( $\beta=0.240, p<.001$ ), 감성지능( $\beta=0.211, p<.001$ ), 학교성적( $\beta=0.182,$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Variables	r(p)					
	College life adjustment(Total)	Academic activity	Career preparation	Individual psychology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exper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0.611(.000)***	0.366(.000)***	0.371(.000)***	0.638(.000)***	0.516(.000)***	0.390(.000)***
Emotional intelligence	0.309(.000)***	0.187(.002)**	0.141(.023)*	0.385(.000)***	0.307(.000)***	0.240(.000)***
Self-efficacy	0.584(.000)***	0.298(.000)***	0.411(.000)***	0.624(.000)***	0.488(.000)***	0.348(.000)***

\* $p<.05$ , \*\* $p<.01$ , \*\*\* $p<.00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Valuables	B	S.E	$\beta$	t(p)	
College life adjustment (Total)	Major satisfaction	-4.340	0.822	0.240	5.280(.000)***
	Emotional intelligence	0.184	0.048	0.211	3.858(.000)***
	Academic achievement	-2.133	0.513	0.182	4.156(.000)***
	Self-efficacy	0.279	0.047	0.326	5.912(.000)***
	Relationships with friends	-2.741	0.953	0.134	2.876(.004)**
R=.716, R <sup>2</sup> =.513, Adjusted R <sup>2</sup> =.504, F=56.493, p<.001					
Academic activity	Academic achievement	-1.036	0.131	-0.395	-7.911(.000)***
	Emotional intelligence	0.050	0.010	-0.259	4.923(.000)***
	Major satisfaction	-0.665	0.210	-0.163	-3.164(.002)**
	Relationships with friends	-0.483	0.238	-0.105	-2.028(.043)*
R=.600, R <sup>2</sup> =.360, Adjusted R <sup>2</sup> =.351, F=37.901, p<.001					
Career preparation	Self-efficacy	0.085	0.016	0.313	5.505(.000)***
	Major satisfaction	-1.348	0.328	-0.232	-4.113(.000)***
	Academic achievement	-0.635	0.208	-0.167	-3.050(.003)**
	Economic status	-0.641	0.298	-0.118	-2.152(.032)*
R=.525, R <sup>2</sup> =.275, Adjusted R <sup>2</sup> =.264, F=23.547, p<.001					
Individual psychology	Emotional intelligence	0.061	0.012	0.281	5.185(.000)***
	Major satisfaction	-0.798	0.215	-0.177	-3.706(.000)***
	Self-efficacy	0.054	0.017	0.252	3.185(.002)**
	Entering motivation	-0.699	0.236	-0.133	-2.962(.003)**
R=.734, R <sup>2</sup> =.539, Adjusted R <sup>2</sup> =.530, F=62.098, p<.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0.045	0.010	0.310	4.639(.000)***
	Relationships with friends	-1.533	0.332	-0.256	-4.621(.000)***
	Emotional intelligence	0.043	0.016	0.169	2.656(.009)**
R=.586, R <sup>2</sup> =.343, Adjusted R <sup>2</sup> =.336, F=44.985, p<.001					

\* $p<.05$ , \*\* $p<.01$ , \*\*\* $p<.001$

$p < .001$ ), 교우관계( $\beta = 0.134$ ,  $p < .01$ ) 이었다. 회귀식은 50.4%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F = 56.493$ ,  $p < .001$ ).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의 예측요인을 살펴보면, 학업활동은 학교성적,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교우관계가 35.1%( $F = 37.901$ ,  $p < .001$ )의 설명력을 보였고, 진로준비는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학교성적, 경제수준이 26.4%( $F = 23.547$ ,  $p < .001$ )의 설명력을 보였다. 개인심리는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 학과선택 동기가 53.0%( $F = 62.098$ ,  $p < .001$ )의 설명력을 보였고, 대인관계는 심리적 안녕감, 교우관계, 감성지능이 33.6% ( $F = 44.985$ ,  $p < .001$ )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체험은 감성지능, 전공만족도, 교우관계가 18.9%( $F = 18.177$ ,  $p < .001$ )의 설명력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 하였고, Kim[26]의 연구에서도 부모님의 경제력이 중상 이상일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더 높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부적응의 공통적인 근원은 빈곤이었으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학업능력이나 포부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고[27],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기 때문에 학업몰입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도록 근로와 장학 등의 다양한 방안을 소개해 주고,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는 학과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지원한 군이 다른 동기로 지원한 학생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대부분의 연구[10,14,19,28,29]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 성적이 3.0 이상일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

도가 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9,10,14,19,30], 학교성적이 높을수록[10,18,26]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출발점이 되므로, 중·고등학교부터 전공학과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와 상담이 중요하다 하겠다[28,29].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체험 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ark과 Choi[31]의 연구에서는 간호대 신입생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습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신입생 대상 학과별 맞춤형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미래에 전문직 간호사로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간호사 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 하였고, 선행연구[10,18]에서도 대인관계와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Kim[18]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Sim과 Bang[32]은 인성이 좋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를 포함한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적응과 성장,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면밀히 살피고, 적절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학생을 찾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간호학생들의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균평점 3.36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 구성요소에서는 학업활동, 개인심리, 사회체험, 대인관계, 진로준비의 순이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한 Sim과 Bang[32]의 연구에서는 3.33점(5점 만점)이었고, 학업활동, 개인심리, 대인관계, 진로준비, 사회체험의 순이었다. 또한 임상실습과정을 1년 이상 실시한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an[11]의 연구에서는 3.27점(5점 만점)이었고, 대인관계가 가장 낮았다.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학과 1학년이기에 취업 준비를 위한 자격증 취득과 영어 공부 등의 진로준

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간호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기에 전공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업 활동이 활발하다 사료된다. 각 연구마다 결과가 상이한 것은 연구대상자들의 학년에 따라 보다 더 관심있는 대학생활 하위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향후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평균평점 3.49점(5점 만점)이었고, 1학년에서 4학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3]의 연구에서는 3.31점(5점 만점)이었고,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았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고, 인생 목표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동기가 있다[33].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자아 성장이나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6,7], 이를 통해 획득한 심리적 안정으로 자신감과 삶의 비전을 높이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행동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생활에 임한다면, 보다 나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4.99점(7점 만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 등[9]은 4.77점(7점 만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Chae[14]는 5.01점(7점 만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선행연구 모두 감성지능 점수는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감성을 조절하며, 자신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합하게 행동하며, 그 결과에 만족한다[13]. 즉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학에 대해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감성지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비정규 교육과정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47점(5점 만점)이었고, 3년제 간호과 1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 등[9]은 3.37점(5점 만점), 3년제와 4년제 각 1개 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17]는

3.33점(5점 만점), 4년제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Yun[34]은 3.02점(4점)이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가 다소 상이한 것은 연구대상자의 학년과 학제가 다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Kim과 Lee[17]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학년별과 학제별(3년제와 4년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중 다양한 활동을 통한 성취경험을 쌓게 하고, 선배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조언 및 학과 교수의 지지와 격려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과 각 하위 구성요소인 학업성적, 진로준비, 개인심리, 대인관계, 사회체험은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Lee[33]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질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낮고, Choi 등[9]과 Ko[10]의 연구에서는 감성지능과 대학생활 적응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한 Choi와 Lee[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Kim[18]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더 잘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녕감,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의 관리 방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감성지능, 학교성적, 교우관계 이었고, 이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 Choi 등[9]의 연구에서도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전공만족, 학교성적이었고, 자기효능감이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1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성적이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Choi 등[9]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 및 과제수행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 사회구성원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를 보면, 학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학교성적, 진로준비는 자기효능감, 개인심리와 사회체험은 감성지능, 대인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타나, 각 하위 구성요소별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Baker과 Siryk[5]는 학업적 적응은 성적, 환경적 적응은 학업의 중도탈락, 개인-정서적 적응은 상담요청 정도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Jeong와 Park[4]은 학업적 적응은 학업에 충실하고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진로준비는 진로를 위해 계획적이며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개인심리는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식 즉, 자아정체성과 용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인관계는 대학구성원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회체험은 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는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4]. 향후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별 방안 마련 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해서는 각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반영하고,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및 감성지능의 향상 전략이 포함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일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확대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하는 변수로는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감성지능, 학교성적, 교우관계이었고, 이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 구성요소별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는 학업활동은 학교성적, 진로준비는 자기효능감, 개인심리와 사회체험은 감성지능, 대인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년별 대학생활 적응 및 하위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하위 구성요소에 영향

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반영한 대학생활 적응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M. C. Kim, D. H. Kim, "A survey report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tudents at Jeju national universit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30, No. 1, pp. 89-168, 2009.
- [2]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13.
- [3] L. Magnussen, M. Amundso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experience", *Nursing & Health Science*, Vol. 5, pp. 261-267, 2003.
- [4]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1, No. 2, pp. 69-92, 2009.
- [5] R. W. Baker, B. Siryk,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1, pp. 179-189, 1984.
- [6]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312-322, 2012.
- [7] Y. S. Kim, J. Y. Seo, "Construction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 No. 6, pp. 1439-1452, 2015.
- [8] H. J. Choi, E. J. Lee,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9, No. 2, pp. 261-268, 2012.
- [9]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2, pp. 182-189, 2015.
- [10]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0, pp. 280-291, 2015.
- [11] J. S. Han,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59-4466, 2015.
- [12] M. S. Kim, H. W. Kim, K. H. Cha, "Analyses i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5, No. 2, pp. 19-39, 2001.
- [13]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ck, A. Schutz, I. Sellin,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ical*, Vol. 30, pp. 1018-1034, 2004.
- [14] K. O. Lee, H. J. Chae,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llege adjustmen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 355-365, 2016.
- [15] S. Y. Min, S. K. Chung, "Self efficacy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5, No. 3, pp. 299-307, 2006.
- [16] Y. J. Choi, G. W. Lee, C. H. Jung, A. R. Le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rational-emotive trai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2, pp. 186-196, 2009.
- [17] D. J. Kim, J. S.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244-254, 2014.
- [18] Y. H. Kim,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a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1, pp. 104-113, 2016.
- [19] H. S. Song, E. S. La, Y. H. Jeon, K. I. Jung,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ving Environment System*, Vol. 23, No. 1, pp. 72-81, 2016.
- [20]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No. 6, pp. 1069-1081, 1989.
- [21] M. S. Kim, H. W. Kim, K. H. Cha, "Analyses i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15, No. 2, pp. 19-39, 2001.
- [22] C. S. Wong, K. S. Law,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 [23] H. W. Ju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octoral dissertation,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007.*
- [24] M. Sherer, J. E. Maddux, B. Merca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 663-671, 1982.
- [25] H. Y.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s dissertati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995.*
- [26]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Master's dissertation, Sungshin University, Seoul, 2015.*
- [27] J. M. Dennis, J. S. Phinney, L. I. Chuateco, "The role of motivation, parental support, and peer support in the academic success of ethnic minority 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6, No. 3, pp. 223-236, 2005.
- [28] K. A. Choi, J. H. Cho, "Differences between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the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at one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44-155, 2015.

- [29] J. A. Kim, J. S. Kang, K. S. Seo, “A convergence comparison of the stress,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college admission process and grade”, *Journal of the Korean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2, pp. 99-112, 2017.
- [30] S. Y.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6, No. 4, pp. 115-122, 2016.
- [31] M. J. Park, D. W. Choi,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a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a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4, pp. 339-349, 2017.
- [32] S. S. Sim, M. R.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2, pp. 634-642, 2016. <https://doi.org/KAIS.2016.17.634>
- [33] E. S. Lee, “Moderated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in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30, No. 3, pp. 470-482, 2016.
- [34] M. S. Kim, S. Y. Yun, “Effects of eating habits and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2, pp. 111-117, 2017.

오 윤 정(Oh, Yun Jung)



- 1997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1998년 3월 ~ 2013년 2월 : 경남도립거창대학 간호과 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건강증진, 보건교육, 지역사회보건
- E-Mail : yjoh@kncu.ac.kr